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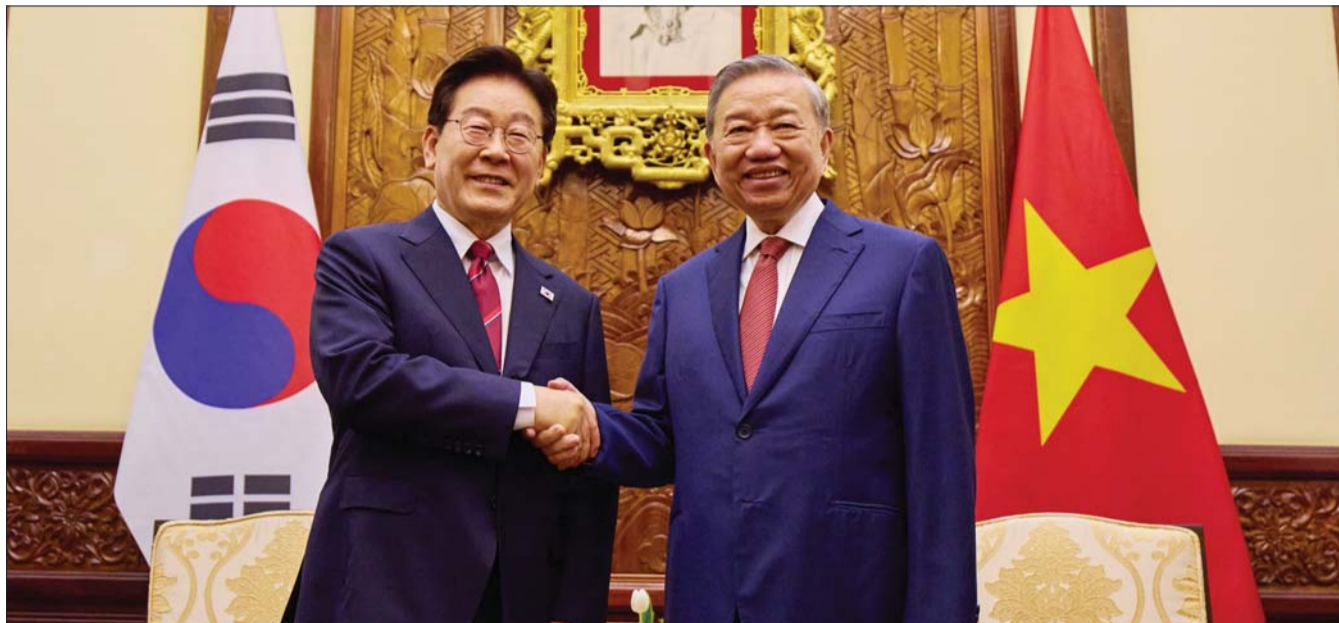
‘원전·인프라’ 협력 맞손… 2030년 교역 1500억달러 목표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미래전략 산업 12건 양해각서 체결
호찌민 도시철도에 수출 계약 예정
베트남 진출 韓기업 고충 해결 요청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 밀착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과 또 럽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원전·전력 에너지 분야와 인프라 등 미래전략 산업 분야에서 1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946억달러 규모의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500% 이상 확장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8월 럽 서기장의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럽 서기장 국가주석 겸임으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등 미래지향적·전략적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럽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22일(현지 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소인수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을 한 단계 높이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경제협력 고도화를 통해 지난해 945억 달러(약 140조원)인 양국 교역액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22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

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전·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프라 사업에 대해 “베트남의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를 이

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담에서 향후 베트남의 경제 발전 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 신도시 1지구(1조1000

억원), 자빈 신공항(1027억원) 등의 대규모 국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럼 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원전의 경우 양국은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및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 MOU’를 맺었다. 여기엔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 협업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별도로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에 희망한다고 했다”며 “럼 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이 대통령 “새로운 흥강의 기적 만들자”

베트남 권력서열 2·3위 연쇄 회담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며 양국의 원전,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에서 베트남 권력서열 2·3위인 레 밉 흥 총리, 쩌 타인 먼 국회의장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흥 총리와 먼 의장은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연임 확정 이후 선출된 새 지도부다. 이 대통령은 전날(22일) 럽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흥 총리와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감으로써 새로운 흥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리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하신 바 있는 총리께서 베트남 경제 번영에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며 “역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흥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방문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베트남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귀국하는 즉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회에서 쩌 타인 먼 국회의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 국가”라며 “국가 발전과 제도 정비를 이끄는 베트남 국회가 양국 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지원해 준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베트남의 ‘2030년 중고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목표를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그 여

정을 함께하겠다”며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 개선을 위해서도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먼 의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최초로 베트남 방문이며 베트남 제16기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며 “(베트남 이)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와 한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경제사절단 109개사를 포함해 양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교역과 투자로 긴밀히 연결된 한-베트남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최근의 국제적 불확실성 대응과 동반성장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국힘 ‘컷오프’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안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번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게감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의원은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당의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지지만 이즈음에 인간이 스스로 가져야 하는 신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떡땀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오래 저를 돕고 함께한 당원과 척을 지고 싸우는 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천이 다시 당원과 시민의 선택 위에서도도록 만들겠다”며 “선거 때마다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을 내리고, 특징인을 찍어내기 위해 기준을 비틀고, 그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천 실패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는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 했다.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국힘, 국방·외통위 소집… 장관 불참에 파행

정동영 장관 경질 촉구

국민의힘은 23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평북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언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촉구한 가운데, 장관들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파행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의 개의 약 50분 후 정회를

선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루었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로 인해 동맹국 간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한미 대북 정보 관련 현안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여당 및 국방부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한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안 장관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같은 시간 외통위에서도 정동영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